



치아 마모 환자에서 수직 고경 증가를 동반한 완전구강 회복 증례

강성진*, 조인호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일생을 통한 교합면의 점진적인 마모는 생리적인 과정이지만, 치아의 마모가 심할 경우 수복을 필요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환자의 구치부에 잔존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단순히 전치부 치관부의 길이가 짧아진 것만으로 수직 고경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치부의 vertical stop이 유지되며 전치부의 치아 길이만 마모에 의하여 짧아진 것은 수직 고경의 변화가 아니라 치관부의 길이가 짧아진 만큼 치조돌기가 정출되어 그 공간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심미적인 수복을 위해서 인위적인 수직 고경 증가가 필요로 하기도 한다.

본 증례의 환자는 69세의 남성 환자로 상악 우측 구치부의 결손 및 하악 전치부의 광범위한 마모로 인한 비심미적 안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초진시 하악 전치부의 심한 마모를 보였지만, 편측으로 vertical stop이 남아 있어 단순히 수직 고경의 감소로 진단하기가 어려웠다. 환자의 안정위, 전치부 치아 길이의 분석, 발음과 안모,

느낌 등을 고려하여 수직 고경 증가를 통한 보철 수복을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결손된 구치부 및 심하게 마모된 하악 전치부 수복을 이루어 주기로 하였다.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교합 거상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6주간 가철성 splint를 통하여 환자가 새로운 수직 고경에 적응한 것을 확인한 후, 4mm의 수직고경 거상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수직 고경에서 진단 wax-up을 시행한 후 안정적인 전방유도와 대합관계 및 적절한 심미성을 지닌 임시 수복물을 제작하였다. 3개월 간의 follow-up을 통하여 환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하고 기능적으로 적응함을 확인하였다.

최종 보철물은 bonnet crown과 기존의 임시 수복물을 사용하여 cross-mounting 방법으로 교합기에 부착하여 제작하였다. 상악 무치악부는 가철성 국소의치로 수복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치료과정을 통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수복을 완료하였기에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